“인간의 삶(존재)를 ‘훌륭한 예술작품’처럼 만들 수 있는 (가능) 조건에 대해 논하시오.

양심 죽음 사랑 가운데 세 가지 소재를 중심으로” 양, 간격 포함 3,000자 내외.

서론

훌륭한 예술작품이란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방면에서 가치를 지닌 작품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의 ‘훌륭한 예술작품’ 같은 삶은 자신만의 훌륭한 가치관을 구축하며 그것을 행하고 타인에게서 인정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훌륭한 가치관이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가치관은 도덕적인 것,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이 개인에게 잘 정립되어져 있고 잘 실천하나면 이를 보고 훌륭한 가치관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훌륭한 예술작품’ 같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단순히 이러한 일상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가질 뿐 아니라 특별한 예술작품처럼 타인에게 영감을 주고 인정받을 가치관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훌륭한 예술작품’처럼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대중이 생각하는 훌륭한 가치관에 더해서 양심, 죽음, 사랑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것에 대한 개개인의 고뇌와 신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필멸자인 자신의 존재를 개인이 확실히 인지하고 삶을 살아갈 방침과 고유한 신념을 만들어 내면서 한 명의 인간이 명화와 같이 신비로움과 멋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단순히 필연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예술작품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필연적인 것들을 이해하면 훌륭한 예술작품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양심, 죽음, 사랑 등 필연적이면서도 가장 논의가 많이 되었던 주제들을 가지고 논해보고자 한다.

본론

우선 죽음은 필연적인 것들 중 가장 확실하고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이다. ‘죽음은 가장 확실하지만, 죽는 때는 가장 불확실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죽음은 필멸자로써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죽는 순간은 가장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자신의 죽음을 은연중 부정하며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일반인)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면 죽음과 반대되는 생명에 대한 경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은 적어도 ‘예술작품’ 같은 삶을 만들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가져야 할까? 죽음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좁게 보자면 자신에게 한정된 의미로써 죽음이 있을 수 있고 , 넓게는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죽음이 있을 수 있다. 첫번째로 자신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순히 생명의 끝으로써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 이후의 세상을 생각하거나 단절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는 죽음을 생각하며 순간의 삶을 치열하게, 후회 없이,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라는 당부를 하는데 이는 죽음이 자신에게 미치는 의미를 생각하며 가져야할 태도이다. 두번째로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변인들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영향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내가 죽었을 때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 지 생각해보고 살아있을 때 자신의 신념과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야한다.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며 현재의 자신을 되돌아봄으로써 현재 자신의 생명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이는 훌륭한 예술작품과 같이 작품 내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처럼 볼 수 있다.

인간이 맞닥뜨리는 필연적인 것들 중 양심 또한 죽음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말한다. 훌륭한 예술작품과 그렇지 못한 예술작품을 구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재하는 양심 또한 판단이 가능하기에 인간의 삶을 훌륭한 예술작품처럼 만들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양심에 대해선 어떤 고민을 가져야 할까? 단순히 양심에 찔려서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정도에서 끝나면 이는 ‘훌륭한 예술작품’같은 삶이 아닐 것이다. 사도 바울에 의해 쓰인 성경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선 양심을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써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판단 기준으로도 사용한다. 그러나 만약 양심을 계속해서 거스르고 양심이 무뎌지면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기능을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양심을 타인과 비교해 점검하고 만약 신을 믿는다면 신이 보기에, 그리고 자신과 타인이 보기에 이상적인 양심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죽음을 유기적으로 생각해보자 그 의미와 나의 상황에서 가지는 의미 예를들어 가정환경, 친구들이 내가 죽으면 어떨지 등)

Ps1.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존재만이 살아있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라고 배운대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